



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필사하고 그 옆에 시에 대한 감상을 써 봐요.
(정답은 없어요.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하든 시를 느끼는 건 나니까!)

© 토마 비노, 마르크 마예프스키

마음에 드는 시:

시에 대한 감상:

